

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2022. 12. 22.(목) 16:00 | 배포 일시 | 2022. 12. 22.(목) 15:00 |
| 담당 부서 |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 | 책임자 | 과 장 김태정 (044-215-4250) |
| | | 담당자 | 서기관 구교은 (kayeunkoo@korea.kr) |

우리나라의 OECD 재정위원회 이사직 연임

- 기획재정부 세제실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이 12.19일(월)에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내 조세정책·행정 분야 이슈를 담당하는 재정위원회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됨(임기: '23~'25년, 총 3년)
- 재정위원회 이사회(CFA Bureau*)는 총 12명으로 구성되며, 국제·국내 세금 이슈를 포함해 조세정책·행정과 관련한 향후 OECD 논의방향 등을 결정
 - * OECD 내 조세분야 정책·행정 관련 실무작업방향·예산배정 등 재정위원회(CFA, Committee on Fiscal Affairs)의 논의방향을 조율
 - 아울러, 소속 이사는 디지털세 협상을 주도하는 포괄적 이행체계(IF, 142개국)의 운영위원회(SG, 24명) 위원 자격도 함께 부여됨
- ▶ **포괄적 이행체계(IF, Inclusive Framework)**: G20/OECD 주도로 전세계 142개국이 참여하여 디지털세 협상과 조세회피(BEPS) 대응 등 국제조세개혁을 추진중

▶ **운영위원회(SG, Steering Group)**: 총 24명(CFA 이사 12명과 개도국 대표 12명)으로 구성되어 142개국이 참여한 실무작업반의 미합의 쟁점 등을 결정하는 상위 의사결정기구

- 즉 실무작업반 논의 → 운영위원회 결정 → IF 총회 최종 승인하는 구조로, 운영위는 디지털세 협상의 핵심쟁점, 논의방향 및 최종합의안을 사실상 결정하는 핵심 기구
- 한편, 한국(고광효 세제실장, '20~'22년)을 포함한 일부 이사의 임기 만료 등에 따른 6개의 공모 직위에 우리나라, 미국, 일본 등 9개국이 지원하여
 - 재정위원회 의장 추천 및 OECD 회원국의 심의를 거쳐 이용주 정책관을 비롯한 아래 6명이 이사로 최종 선임됨

| 국 가 | 소속 및 직위 | 이 름 |
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한 국 |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| Mr. Yong Ju Lee |
| 일 본 | 재무성 국제조세정책 차관보 | Mr. Atsushi Komiya |
| 미 국 | 재무부 조세정책 자문관 | Mr. Michael Plowgian |
| 독 일 | 재무부 국제조세국장 | Mr. Martin Kreienbaum |
| 스페인 | 재무부 조세정책국장 | Ms. Maria Jose Garde |
| 핀란드 | 재무부 조세정책국장 | Ms. Terhi Jarvikare |

□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OECD 국제조세 논의 주도할 것으로 기대

- 이용주 정책관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, 재산세제과장, 환경에너지세제과장, 다자관세협력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으며, 국세청 서울 강서세무서장,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등 국세행정과 거시경제정책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도 겸비

- OECD의 국제조세, 조세정책 등 관련 논의에서 전임 재정위 이사인 고광효 세제실장에 이어 우리나라가 계속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

- 기존 국별 순환 관례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이사직 “연임”은 최초*이자 이례적인 결과로, 조세분야 국제규범 논의에서 그간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·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결과로 평가

* 과거 우리나라의 OECD 재정위 이사 진출사례:

(‘10~’11)김낙희 조세기획관, (‘13~’15)최영록 조세기획관, (‘20~’22)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

- 앞으로 OECD의 조세분야 규범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

- 특히, 내년 상반기 필라1 협상완료, ’24년 필라1 시행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세를 비롯하여 국제조세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국제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

□ 한편, 국제조세정책관 신설(12.27일 시행예정)을 계기로

국내 조세제도와 국제조세 간 유기적 연계도 강화할 계획

- 앞으로 정부는 국제조세개혁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을 지속 확대하면서
①우리 의견을 반영한 국제조세규범 마련, ②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내 조세제도 개편* 등 국내·외 제도 간 시너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

* (내년)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

* CFA(Committee on Fiscal Affairs)

- CFA(재정위)는 OECD 각료이사회(Council) 산하에 있는 26개의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, 조세정책·행정과 관련하여 산하 작업반 회의 등을 통한 새로운 guideline 개발, 회원국의 이행여부 등을 모니터링
- CFA 전체회의는 매년 1월 및 6월말 연간 2회 개최되어 직전 6개월간 각 작업반 논의사항 검토 및 승인
- 한편, 당연직으로 선임되는 포괄적 이행체계(IF, Inclusive Framework)의 운영위(SG)는 월 1회정도 개최되어 디지털세 협상 방향과 쟁점을 조율

□ (역할) OECD 재정위(CFA)에 속하는 모든 실무작업반*의 주요 작업방향 및 예산배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

- * WP1(조세조약), WP2(조세정책분석), WP6(이전가격), WP9(소비세제), WP10(정보교환), WP11(공격적 조세회피) 등

□ (임기) CFA Bureau 이사로 선출되면 보직변경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3년간 Bureau직위 수행


□ (일정) CFA 전체회의 전, 중요 안건 발생시 수시 개최(SG는 월1회)

□ (구성) 의장 포함 총 12명(파란색 신규 이사)

| Chair | Gaël Perraud (프랑스) | Deputy Chair | Mike Williams (영국)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Vice Chairs | Shawn Porter (캐나다) | Emma Cunningham (아일랜드) | Atsushi Komiya (일본) |
| Advisory Board Members | Claudia Vargas Cifuentes (콜롬비아) | Filip Majdowski (폴란드) | Michal Plowgian (미국) |
| | Yong Ju Lee (대한민국) | Martin Kreienbaum (독일) | Maria Jose Gard (스페인) |
| | Terhi Jarvikare (핀란드) | | |

참고 2

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인적사항

| | | |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생년월일 | 1970. 10. 12.(음력, 52세) | |  |
| 학 력 |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학사 英 맨체스터대 MBA 석사 가천대 경영학 박사 | | |
| 주요경력 | '94 | 행 정 고 시(38회) | |
| | '95~'05 | 재정경제부 사무관(소비세제과, 소득세제과 등) | |
| | '05~'06 | 재정경제부 서기관(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, 경제분석과) | |
| | '06~'09 | 駐LA 총영사관 영사(국세관) | |
| | '10~'11 |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보좌관 | |
| | '11~'12 |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장, 환경에너지세제과장 | |
| | '12~'13 | 서울 강서세무서장 | |
| | '13~'15 |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| |
| | '15~'18 |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, 재산세제과장 | |
| | '18~'20 |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 | |
| | '21~'22 |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| |
| | '22~현재 |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| |